

지혜 Ⅷ

이해되지 않아 투덜거려도, 가다 보면 알게 됩니다.

1. 당황스러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은,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하고 옳은줄 알면서도 따르고 싶지 않은 마음일 때이다. 그 당황스러움은 바로 '내 자신'이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싶은 마음의 출처는 도대체 어디일까? 출처가 어디이기에 상상할 수도 없는 생각과 마음이 드는 것일까? 물론 영적인 원리에 입각한 답은 간단하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싶어하는 '육'의 생각이다. 바울도 '사망의 몸'이라 표현하며 자신안에 있는 두 가지 마음 (하나님의 법 / 육체의 법을 따르는 두 자아)이 자신 내면에 있음에 충격을 입었다.

[로마서 7:22-24]

22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의 궁금점은 이런 내면의 상태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은 이런 부족한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에 대한 질문을 해보자. 실망, 심판, 책망 등 부정적인 생각들이 먼저 떠오를 것이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있다. 바로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이다.

2. 하나님의 뜻을 피하여 가는 요나

[요나 1:2-3]

2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3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낫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뱃삿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낫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다(2절).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그 성에 있는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장면이 3절에 나타난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가야 할 요나는 '주님의 낫(얼굴)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 한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와같은 행동을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요나의 반응은 충격적이다.

3. 고난에 대한 두 가지 해석

이 때부터 어려움이 나타난다. 이것은 비단 요나에게만 있는 어려움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큰 바람을 보내셔서 큰 폭풍이 일어났다(4절). 이와 같은 어려움 때문에 요나와 함께 승선해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곤경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어려움 앞에서 이들은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일어났는지 제비를 뽑자고 한다. 재미있는 사실은 세상이 밝혀내는 재앙의 근원에 요나가 뽑힌 것이다. (7절)

신앙은 이 세상안에 있는 '고통과 고난'에 대한 해결이다. 고통과 고난의 정의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 이 고통과 고난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사람안에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창조적 본능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 그 때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난제'들에 대한 답을 세상이 제비뽑기를 하듯 원인을 찾고 있다. 그리고 고통에 대한 해결의 열쇠를 '하나님의 사람들인 성도와 교회'에게 있음을 세상은 지금도 외치고 있다. 세상의 어려움에 대하여 그들이 갖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기준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더 엄격하다.

“교회라면, 성도라면, 성직자라면 달라야 해” 라는 그들이 만든 기준이, 자기들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우리에게 들이치는 이기적인 요구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세상은 이미 너무나 어렵소. 너무나 힘들단 말이오. 희망이 없소.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 당신들은 어두움이 짙은 이 시대의 등대 역할을 해야 하오. 당신들이 빛을 내주어야 이 세상은 희망이 있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성도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 때문에 일어난 풍랑이다. 즉,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고난 속에 숨겨진 세상과 교회를 향한 두 가지 해석이다.

단순한 고난이 아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기 원하신다. 말씀을 보라. 요나 스스로 이 고난의 원인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기 때문이라고 고백한다.

[요나 1:10] 요나가 그들에게, 자기가 주님의 낚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다고 말하니,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겁에 질려서 그에게 소리쳤다. "어찌자고 당신은 이런 일을 하였소?"

[요나 1:12]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 앞의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오. 바로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소."

요나가 스스로 책임을 지고 바다에 던져졌을 때 풍랑이 바로 잠잠해졌다. (15절)

4. 부족한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

그 순간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삼일을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낚을 피하여 도망간 자신을 바닥과 같은 상황에서 발견한다. 은혜를 잊어버렸음을 고백한다 (8절). 그리고 다시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헌신한다. 그 순간 물고기는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 그 곳이 바로 하나님이 원래 가라고 말씀하신 '니느웨'였다.

놀라운 사실은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한 부족한 사람임에도, 하나님의 열정은 요나의 온전한 상태와 상관없이 물고기를 통해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은 놀라울 뿐이다. 어떤 책망도 없다.

5. 어떤 책망도 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그 이유는 분명하다. 요나서 1:2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 바로 앞까지 찻기 때문이다. 이미 시한폭탄 버튼이 눌러진 상태이다. 긴박한 상황이다. 하나님의 안중은 요나의 '의로움'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마음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데만 집중하고 있다. 요나를 선교사나, 목회자나, 직분자로 비교하면 전혀 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너무나 부족해서 자격이 없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어떤 됴됨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긴박한 일 앞에서 옷을 갖추어 입을 타이밍이 없다.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보며 준비운동 할 시간이 없다. 바로 뛰어 들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요나서 3:10의 말씀처럼 그들이 악한 곳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심판이 철회되었다.

6. 부족해도, 이해되지 않고, 그래서 투덜거리고 불만이 있어도 가야 한다.

요나서 4장을 보니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사실을 요나는 싫어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4:1). 자기의 생각과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계속 불평한다.

[요나 4:3-4]

3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4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자기 목숨을 걸고 불평하며 성을 낸다. 이런 요나를 위해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 성읍에 초막을 지은 요나를 위하여 박넙쿨을 예비하신다. 그늘을 만들어서 뜨거운 햇빛을 피하게 하셨다. 단순한 요나는 박넙쿨 하나에 크게 기뻐했다. 이 얼마나 단순한 사람인가. 조금 전까지 자기 목숨을 가져가라고 하더니, 박넙쿨 하나 때문에 또 크게 기뻐한다.

박넙쿨 하나 때문에 기뻐하는 요나를 보시고 하나님은 벌레를 보내 박넙쿨을 갉아먹게 하신다. 해가 뜰 때에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신다. 햇별이 요나의 머리에 쏘인다. 요나의 정신이 혼미해졌다고 기록한다. 이 때 요나는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좋다고 하며 하나님께 불평하여 성질을 부린다. “왜 성질을 부리느냐” 라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요나는 박넙쿨 하나 때문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알지라도 옳으니이다” 라며 자기의 뜻을 더 강력하게 주장한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다.

[요나 4:10-11]

10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 버린 이 식물을 네가 것처럼 아까워하는데,
11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십이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의문이 있었을 것이다. 요나에게 박넙쿨을 주셔서 요나에게 기쁨을 주셨던 하나님이, 또 박넙쿨을 거두어 가셔서 요나를 불평하게 한다. 왜 그러셨을까? 이유는 하나이다.

7. 요나서 4장 12절?

요나가 박넙쿨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처럼, 하나님이 죽어가는 니느웨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요나를 통해 알게 하신 것이다. 이 말씀 후에 11절로 요나서는 끝이 난다. 만약 12절이 있다면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다시스로 도망가면서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심지어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고 고백하며 지금까지 온 요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안에 있는 사랑을 보이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아서 불평하고,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절하는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상태에 신경쓰지 않으신다.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다. 설교 서두에 던진 질문의 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부족한 우리의 마음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답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구원하기 위해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 이것이 복음이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된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해되지 않아 투덜거려도 멈추지 말고 하나님이 가라하시의 곳을 가라. 결국은 그 사랑을 알게 될 것이다. 멈추지 마라. 계속 나아가라. 그 끝에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라. 움직이게 하라.